

2015 새 설계

유근기 곡성군수

“기능성 농특산물 적극 육성...농업의 6차 산업화 박차”

‘곡성 주식회사’의 대표 일꾼임을 자임하는 유근기 군수.

유 군수는 진취적 기상을 발현한다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군민행복을 위한 걸림돌은 치우고 확실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인 2015년, 곡성군정은 ‘함께하는 곡성’, ‘희망이 있는 곡성’, ‘군민이 행복한 곡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따라 각 분야에서 가속도를 붙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군민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능성을 갖춘 차별화된 농·특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곤충산업 육성과 농식품가공 등을 통해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농과 영세농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섬진강변 종합개발의 틀을 새로이 마련해 사계절 가족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을 정착시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섬진강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심

기차마을 중심 관광객 유치 확대 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보급늘려 삶의 질 향상

정 효(孝) 테마파크’ 조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유평로 역사촌’ 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재건로’ 조성과 지리산권 7개 시·군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써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심정숙제와 장미축제의 적극적인 테마 발굴과 내실화로 명품 축제화를 서두르는 한편 곡성읍, 석곡면, 옥곡면 등 권역별 수요조사에 따른 문화공연 등 지역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 갈 생각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을 인용해 읍해는 물론 인기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군민 행복’이라고 밝힌 유 군수는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막힌 곳은 뚫고 원칙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외된 이웃없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기능성 농산물로 농업의 6차산업화
- ▲중·소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
- ▲‘동화나라 프로젝트’ 추진
-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확대 운영
- ▲군민을 만드는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복지 분야에서는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정된 노후생활,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복지 전달체계 개선 공모에서 복지행정 ‘대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 수요자중심의 따뜻한 생활복지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버스가 다니지 않는 2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새해 첫날부터 시작한 수요 응답형 ‘효도 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군내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등 초·중·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려고 한다.

일제 장출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둔 경제 분야에서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도시

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상품 다양화와 품질 향상, 서비스 고급화, 상설시장화 등 지속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기차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마을기업 8개소와 사회적 기업 4개소를 육성해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게 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과 다름없이 주민 정주환경 개선과 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평생교육의 내실화, 군민을 만드는 진정한 공무원상(像) 정립, 열린행정 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말하는 유 군수.

“함께해요! 희망 곡성”의 기치를 내건 유 군수는 자신이 곡성군의 ‘대표 영업사원’이라며, “올 한해도 이러한 각오로 공모사업과 예산확보 등 군정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를 넘어 중앙부처는 물론 어느 곳에도 달려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배 영농조합법인 ‘우수 수출단지’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 인증평가

곡성배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재균)이 지난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주최의 ‘2014 우수 수출단지 인증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수출단지로 선정돼 인증패와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달 호남지역 배수출 8단지 9선과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곡성배 영농조합법인은 효율적인 선과 시설과 주변환경 정비 등 깨끗한 시설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성배 영농조합은 지난 1995년에 결성돼 70여 농가(총 80ha)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시설로 지정돼 연간 400t 이상의 곡성배를 미국으로 수출해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곡성배 영농조합의 우수 수출단지 선정을 계기로 곡성배 수출을 촉진하고 타 단지에 대한 롤 모델(Role Model)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차품질 표준화·전문인 양성 등 법적 근거 마련...보성 녹차산업 탄력

‘차산업 발전 법률안’ 국회 통과

‘녹차수도’ 보성군의 차(茶) 산업과 차문화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의원 13명(박민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차(茶)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차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안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차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차 문화의 계승 및 발전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차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그동안 차산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차산업 진흥정책 미수립, 차의 품질관리 및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차품질 표준화가 제시되지 않아 전통차 산업이 다른 음료시장에 밀렸으나,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으로 침체된 차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차(茶)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침체된 차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녹차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과 융합한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해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군 소규모 사업 297건 자체설계 TF팀 본격 가동 기술직공무원 12명으로 구성

구례군이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적기 발주를 위해 실시할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군은 소규모 사업중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297건에 대한 자체설계를 위해 군청 안전건설과와 읍·면 기술직공무원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 달부터 조사측량과 내역작성 등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대상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181건 ▲주민숙원사업 116건 등 297건(사업비 49억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로포장공사 140건, 배수시설 개선 67건, 회관 등 공공시설 개선 90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군은 이런 점을 감안해 2월중에 발주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체설계 TF팀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조사측량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설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